

한라시론



김 양 훈
프리랜서 작가

봄빛이 완연한데 나라 꼴은 엉망이다. 지난달에는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때맞춰 상영한 드라마 ‘더 글로리’는 사그라지던 분노의 잔불을 꺼왔다. 학폭의 속성은 학교의 담장을 넘나드는 사회현상이고, 현재적이기 때문이다. 드라마 ‘더 글로리’의 대사 한 토막이다. “니들은 왜 다 그걸 묻냐? 난 이래도 아무 일 없고 난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지금도 봐, 네가 경찰서 가서 그 지랄까지 떨었는데 난 또 여기 와 있고 뭐가 달라졌네? 아무도 널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리

빨갱이라는 이름의 낙인

야 동은아, 경찰도 학교도 니 부모 조차도. 그걸 다섯 글자로 하면 뭐다? 사회적 약자!” 피해 학생은 지지리도 운이 없어 검사 아버를 뒷배로 가진 학우를 만난 것이다. 왜 사춘기 제주 청년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더러운 ‘돼지새끼’와 ‘빨갱이 새끼’라는 욕설을 반복해 들어야 했을까. 제주 해협을 건너 유학을 왔고 진보적인 신문을 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50년 넘게 육지에서 살아온 제주섬 출향인의 마음에 감회가 몰려왔다. ‘똥통시’는 70년대만 해도 섬나라 시골에 남아있던 독특한 풍경이었다. 분노를 이용해 화산섬 자갈밭을 살찌우는 거름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바다 오염을 원천 봉쇄했다. 당시로서는 썩 먹고 알 먹는 최적의 친환경 생대순환 방식이었다. 이 지혜로운 조상 덕에 제주 장병들은 신병훈련소

에서 무시로 ‘똥돼지’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빨갱이’는 다르다. 더러운 돼지새끼와 빨갱이 약마가 버무려지면 생사를 갈랐다. 이는 제주4·3 당시, 기독교 신자인 서북청년단원들이 제주 양민을 거리낌 없이 학살했던 의식구조였기 때문이다. 제주 사람을 읽매는 빨갱이란 굴레는, 일제가 좌익이념을 가진 독립운동가에게 찍었던 낙인이었다. 1948년 5·10 선거에 아버지가 우익 진영 후보로 출마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채만식의 소설 ‘도야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 “1940년대의 남부조선에서 불세비키, 멘세비키는 물론 아나키스트, 사회민주당, 자유주의자, 일부의 크리스찬, 일부의 불교도, 일부의 공맹교인, 일부의 천도교인, 그리고 주장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로서 사회적 환경으로나 나이로나 아직

확고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잡힌 것이 아니요, 단지 추잡한 것과 부정사악한 것과 불의한 것을 싫어하고, 아름다운 것과 바르고 참된 것과 정의를 동경 추구하는 청소년들, 그 밖에도 XXXX와 XXXX당의 정치노선을 따르지 않는 모든 양심적 이요 애국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 빨갱이라고 불렀느니라.”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의 정치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빨갱이란 소리였다. 그래서 ‘빨갱이의 탄생’을 쓴 김득중 선생은, 빨갱이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처벌받은 뒤에 빨갱이가 ‘되었다’고 말한다. 검사의 아들이나 태영호 같은 이들에게 권한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제대로 읽고 조성봉 감독의 다큐 영화 ‘빨갱이 사냥’을 감상하시라. 영화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사설

상수도 누수율 최고... 물 관리 틀 바꿔야

어제(3월 22일)는 ‘세계 물의 날’이었다. 물은 생명 탄생의 주역이자 생명유지의 핵심이다. 인류는 물과 더불어 진화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2021년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제주도 누수율은 51.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평균 누수율은 85.9%이다. 이에 반해 누수율은 43.1%로 전국 1위이다. 전국평균 누수율 10.2%에 비해 무려 4배나 높다. 특히 제주도의 연간 누수량은 7076만 9000톤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6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농업용수 누수율도 50%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제주도민 1인 1인당 물 사용량은 334ℓ로 전국 3위다. 물 사용량은 많은데 누수율이 높아 물 부족 사태를 우려하

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제주도의 물 관리 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유수율을 끌어올리는데 수천억 원을 투자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위험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돼 있다. 국민 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세계 평균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물 자원을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는 더 심각하다. 지하수 수위는 점차 낮아지고 해수침투와 오염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는 물 관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사후약방문식 관리가 아니라 지하수 수위 제고 및 오염 사전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물의 소중한 것은 누구나 잘 알지만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일상생활 속 물 절약 캠페인과 병행해 나가야 한다.

제주도 주거종합계획 치밀하게 세워라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역점 정책 구상이 본격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주요 주거 정책과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과제를 수립·반영하는 주거종합계획 변경에 착수키로 했다. 계획 변경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2018~2027)은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2027년까지의 주거정책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세부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8기 도정 역점 정책인 공공분양·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이번 계획에 담아내기로 했다. 세부 과제에는 주택·택지의 수요·공급을 비롯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공급 ▷공

동주택 관리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주택시장 안정화 ▷빈집 활용 및 관리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공공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도민들의 주택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택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데 1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택지공급’ 방안을 선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과잉공급 심화 등으로 민간주택시장이 더욱 악화하는 것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도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 최우선 목표인 제주도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분석과 실행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편집국 25시

더 머리 맞대 봅시다



김 지 은
뉴미디어부 차장
jieun@ihalla.com

“태어나 2년간은 장애가 있어도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과정을 거치며 장애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말이다. 이 시기에 병원을 찾아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영유아 발달검사에서 ‘추적 검사, 심화 평가권고’가 떠도 18개월까지 지켜보자는 말을 듣는다. 애가 타는 부모는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로 아이의 상태를 판단”하며 속을 끓여야 한다. 다행히 아이의 증상을 빨리 인지

하더라도 바로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복지관을 이용하려면 1~2년 대기가 기본이고 온전히 사설 치료기관에 의지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 이 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국가 차원의 통합된 조기 개입 체계다. 장애 진단 전이여도 장애 위험 등이 발견되면 발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적 영역 안에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지자체의 힘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국내 성공 사례로 꼽히는 ‘서초아이발달센터’(서울시 서초구)는 지자체, 의료기관, 보육·교육·상담기관 등과 협업하며 장애아와 그 가정에 맞는 서비스를 연결해 주고 있다. 이참에 제주에서도 ‘장애 통합 지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 대개의 ‘토론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뉴스-in

‘폐암 확진’ 교육감 사과 요구에 “아직은”

“산재 신청하도록 안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산재 인정 여부 등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반응.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암 확진자에게 산재 신청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면서 향후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면 교육감 사과 등이 뒤따르지 않겠느냐는 입장. 이와 함께 제주지부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관련 규정에 의해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운영 중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다”면서 별도 협의체 가동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 전선희기자

양돈 축산악취 인식 변할까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뜻을 모으면서 축산악취 등으로 인한 도민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지 관심.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공동으로 22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양돈농가 대상 축산환경개선 교육 및 냄새저감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도내에서 폐지유행설사병(PED)이 발생함에 따라 전원 방역복을 착용하는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냄새저감 의지를 다지는 실천 퍼포먼스를 전개. 이 자리에서 김희현 제주도정무부지사는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 이태윤기자

차고지/주차장

市の 자기차고지갯기사업

* 市 지원 90% *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 자기차고지갯기사업 ***

No.1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수리/하자보수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임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합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합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토지임대

제주시 월성로4길 76-2
(해대등산/공항방면 우측)

대지 4,123㎡(1,247평)

건물 2동 / 2중 근린생활시설

현재 렌터카 차고지

임대료 상담후 결정

744-2002, 010-2113-211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 (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 (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만에 가능합니다.”

-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도택배**

방수 단열

우 레 탄

우 레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 해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처 180평 (바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도로 근처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법성포장 180평 (주택 건축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정 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